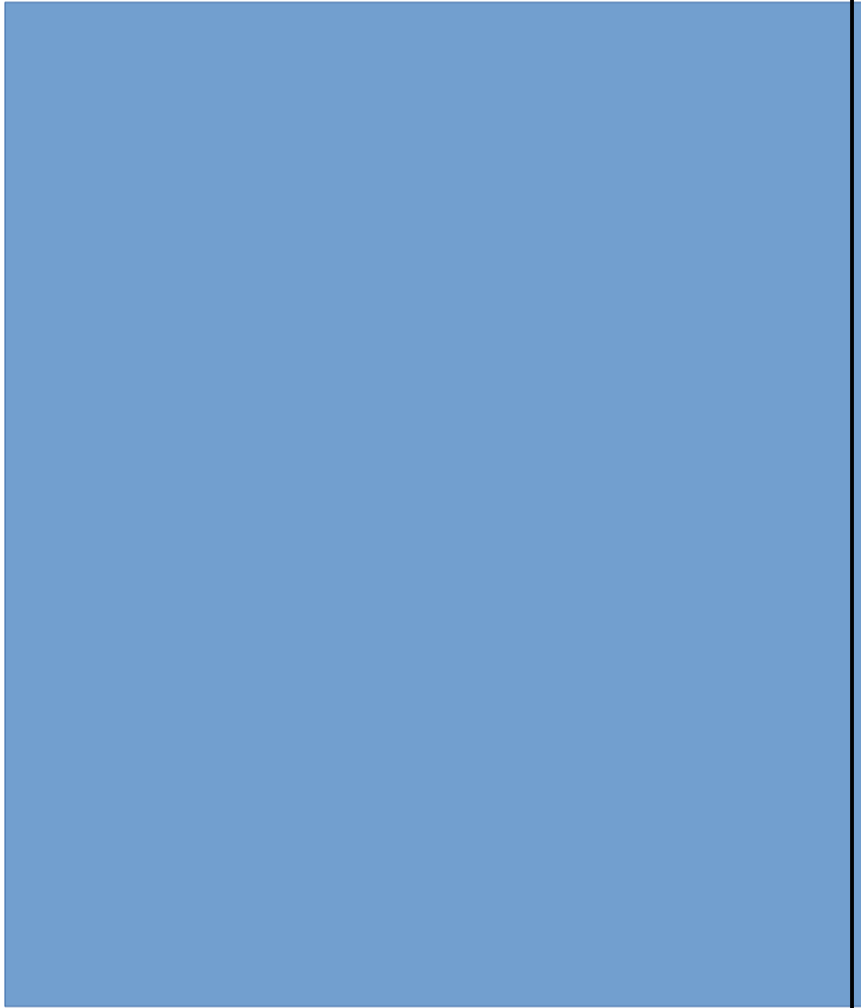


언어 영역

- 1 먼저문제지에 성명과수험번호를 정확히기입하시오 .
- 답안지에 수험 번호 , 답을 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 수험생이 지켜야 할 일 ' 에 따라 표기하시오 .
- 문항에 대한 답안지 , 각 문항에 대한 점수를 표시하시오 . 1 점과 3 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점수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 점씩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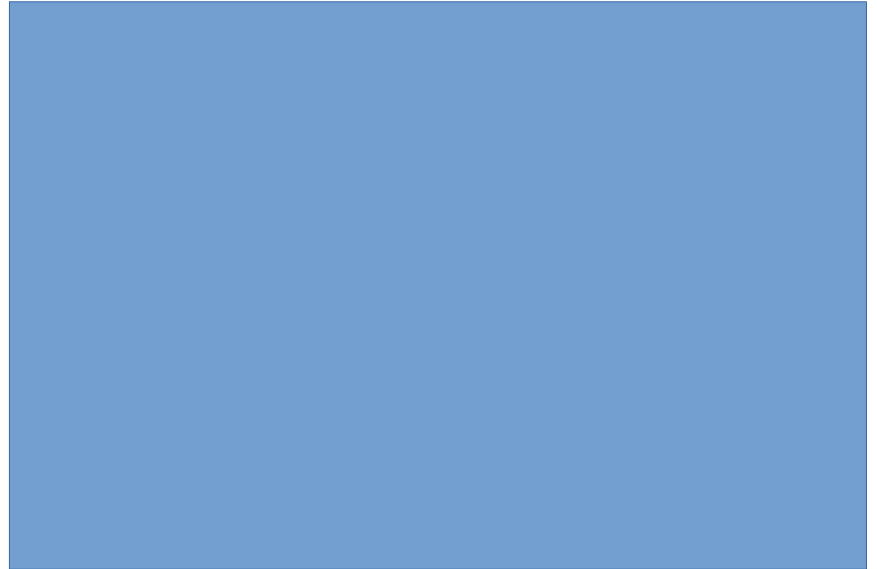
1. (물음) D 지점에서 꿀을 발견한 벌이 벌통으로 돌아와 취할 행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 번과 6 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언어 영역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동아리 소식】

[A]

본교 연극 동아리 '한마당'이 지난 달 서울 ○○대학교에서 개최된 제 3 회 전국 학생 연극 발표 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한마당'은 이번에 우리 전통 춤을 지키려는 한 예술가의 혼을 그린 '비상(??)'이라는 작품으로 참가했는데, 참신한 내용과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력이 심사위원들과 관객으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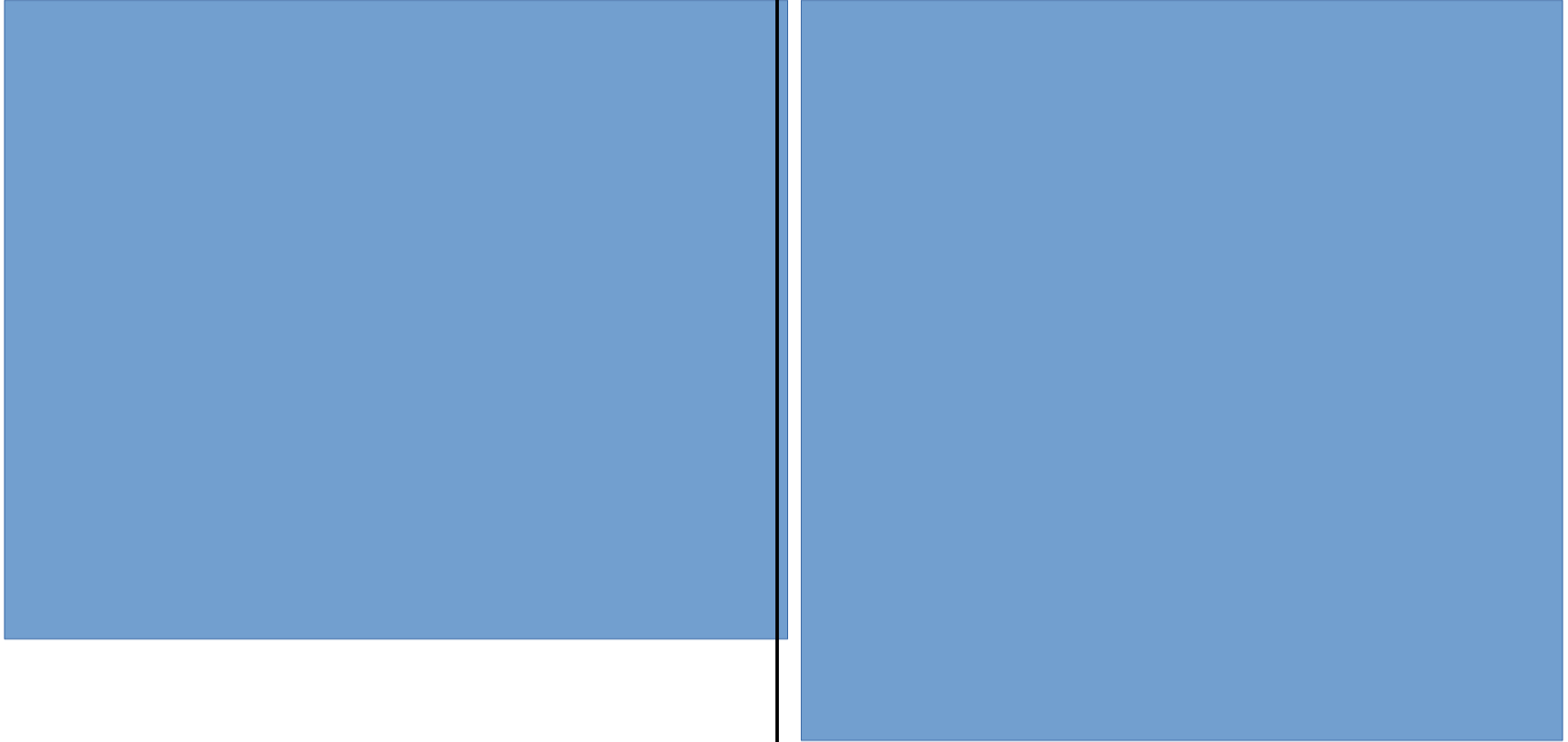
'한마당'의 이번 수상은 학교 지원도 부족한 상황에서, 또한 변변한 연습실마저 없는 어려운 여건에서 이뤄낸 쾌거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하겠다. 한편 '한마당'은 이번 수상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다음 달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시민문화회관에서 앙코르 공연을 가질 예정이다. '한마당'의 지속적인 분발을 기대해 본다.



인 것은?

언어 영역

3



한다.
C]를 통해 제기한다.
음을 예로 제시한다.
야 할 필요성을 [글감 A]를 통해 언급한다.
을 제안한다.

않은 것은? [1 점]



3 점]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지금부터 그걸 하나씩 내게 펴 보이도록 해라."

초현은 여전히 말없이 고죽이 시키는 대로 했다. 첫장은 고죽이 삼십대에 쓴 것으로 우세남(??^㉟)의 체를 받은 것이었다.

"우백시(???)의 글인데, 오절(??=덕행, 충직, 박학, 문사, 서한)을 제대로 본받지 못했다. 왼쪽으로 미뤄놓아라."

그 다음은 난초를 그린 족자였다.

"이미 소남(??=정사초)을 부인해 놓고 오히려 석파(??=대원군)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했구나. 산란(??)도 심란(??)도 아니다. 왼쪽으로 미뤄 놓아라."

고죽은 한 폭 한 폭 자평(??)을 해 나갔다. 오랜 원수의 작품을 대하듯 존엄하고 냉정한 평이었다. 글씨에 있어서는 법체(??)를 본받은 경우에는 그 임모(??)나 집자(??)의 부실함을 지적하고, 그리고 자기류(??)의 경우에는 그 교졸(ε?)과 천격(?+)을 탓하면서 모두 왼편으로 제쳐놓았다. 그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옛법의 엄격함에다 자신의 냉정한 눈까지 곁들이니, 또한 오른편으로 넘어갈 게 없었다.

새벽부터 시작된 그 작업은 아침 해가 높이 솟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나중에 정박사가 몇 번이고 감탄했던 것처럼 거의 초인적인 정신력이었다. 아침부터 몰려든 사람들로 고죽의 넓은 병실은 어느덧 발디딜 틈 없이 뻘뻘해졌다. 그러나 엄숙한 기세에 놀려 누구도 그 과도한 기력의 소모를 말할 엄두를 못 냈다. 고죽도 초헌 외에는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러다가 열 시가 넘어서야 분류가 끝났다. 결국 초헌의 오른쪽으로 넘어간 서화는 단 한 폭도 없었다.

"더 없느냐?"

마지막까지 간절한 기대에 찬 눈으로 자신의 작품을 검토하고 있던 고죽이 더 이상 제자의 무릎 앞에 놓인 서화가 없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이상하게 불안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네." 초헌이 무감동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고죽의 얼굴에 일순 처량한 빛이 떠돌더니 그때까지 꾀꾀하던 고개가 힘없이 떨구어지며 그의 몸이 스르르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고죽은 그 순간도 명료한 의식으로 내면의 자기에게 중얼거리고 있었다. 결국 보이지 않았다. 나 역시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그걸 보고자 소망했지만, 어쩌면 그 소망은 처음부터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실은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이 일을 미루어 온 것인지도 모르지…….

그렇다면 고죽이 그의 일생에 걸친 작품에서 단 한 번이라도 보고자 했던 것은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바로 그 새벽의 꿈에서와 같은 금시조였다. 원래 그 새가 스승 석담으로부터 날아올 때는 굳센 힘이나 투철한 기세 같은 동양적 이념의 상징으로서였다. 그러나 고죽이, 끝내 추사에 의해 집성되고 그 학통을 이은 스승 석담에게서 마지막 불꽃을 태운 동양의 전통적 서화론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그 새 또한 변용되었다. 고죽의 독자적인 미적 성취 또는 예술적 완성을 상징하는 관념의 새가 되어 버린 것이었다.

<중략>

"이걸 써서 밖으로 가지고 나가거라. 장독대 옆 화단이다."

"?……."

좀체 스승의 말을 되묻지 않는 초헌도 그때만은 좀 이상한 모양이었다.

"나는 저것들로 일평생 나를 속이고 세상 사람들을 속여 왔다. 스스로 값진 일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당연한 듯 세상 사람들의 감탄과 존경을 받아들였다."

"무슨 말씀을……."

"물론 그와 같은 삶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아니다."

"……."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것들에서 솟아오르는 금시조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것으로 내 삶이 온전한 것으로 채워질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설령 내가 그 새를 보았다 한들 과연 그러할지 의문이다."

"……."

"자. 그럼 이제 시키는 대로 해라. 이것들을 남겨 두면 뒷사람까지도 속이게 된다."

그러자 초헌은 말없이 서화 꾸러미를 안고 문을 나섰다. 스승의 참 뜻을 알아들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더는 영을 거역할 수 없기 때문인지도 알 수 없지만,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런 초헌을 말리려 나서지 않았다. 언제부터인가 고죽을 감돌고 있는 이상한 위엄과 기품에 압도된 탓이었다.

"문을 닫지 마라."

초헌이 나가고 누군가 문을 닫으려 하자 고죽이 말했다. 그리고 마당계로 걸어가고 있는 초헌을 향해 임종을 앞둔 병자답지 않게 높고 뚜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다 모두 내려 놓아라."

방안에서 한눈에 들어오는 장독대 곁 화단이었다. 몇 포기 시들어가는 풀꽃 옆에 초헌이 서화 꾸러미를 내려 놓자, 고죽이 다시 소리 높여 명령했다.

□"불을 질러라."

그제서야 방 안이 술렁거렸다. 일부는 고죽을 달래고 일부는 달려나와 초헌을 붙들었다. 모두가 쓸데없는 소란이었다. 자기를 달래는 사람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고죽이 돌연 벽력 같은 호통을 쳤다.

"어서 불을 붙이지 못할까!"

그러나 알 수 없는 것은 초헌이었다. 그 역시 까닭 모르게 노한 얼굴이 되어 잠깐 고죽을 노려보더니, 말리려는 사람을 거칠게 제쳐 버리고 불을 질렀다. 뒷날 고죽을 사이비(???)였다고까지 극언한 것으로 보아, 그의 내면에 숨겨져 있던 석담 선생적인 기질이 고죽의 그 철저한 자기 부정(??)과 또는 지나친 자기 비하(??)에 반발한 것이리라. 마를 대로 마른 종지와 형겼인 데다가 개중에는 기름까지 먹인 것도 있어 서화터미는 이내 맹렬한 불꽃으로 타올랐다. 신음 같은 탄식과 숨죽인 흐느낌과 나지막한 비명들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어떤 사람에게는 고죽 일생의 예술이 타고 있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처절한 진실이 타고 있고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죽의 삶 자체가 타는 듯도 보였다. 드물게는 불타는 서화터미가 그대로 그만한 고액권 터미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반 세기 가깝게 명성을 누려 온 노대가, 두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 그의 서화를 얻어가고, 국전 심사위원도 한 마디로 거부한 고죽의 진적(??)들이 한꺼번에 타 없어지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때 고죽은 보았다. 그 불길 속에서 홀연히 솟아오르는 한 마리의 거대한 금시조를. 찬란한 금빛 날개와 그 힘찬 비상을.

- 고죽이 숨진 것은 그날 밤 8 시경이었다. 향년 72 세.

- 이문열, 금시조(nf??) -

5

언어 영역



언어 영역

[25~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흰구름 에 묻혀 있기에 ?????

흰구름을 스님은 쓸지를 얹아 ?????
바깥 손님 와서야 문 열어 보니 ㅈ◆??에
송화 는 하마 쇠었네. ?????
- 이달, 불일암 인운 스님에게 -

(나) 초암(??)이 적료(??)한 ㅈ ㅈ 벗칩시 한ㅈ, 안ㅈ,

백운(??) 이 절로 존다.
언의 뉘이 ㉠조흔 뜻을 알 리 잇다 ㅎ, 리오.
- 김수장의 시조 -

아ㅈ, ㅁ이 낫브거니 나조흔 ㅈ라 슬흘소냐, 오ㅈ, ㄹ리 부족(??)커니 내일(p?)리라 유여(??)ㅎ, ㄹ라.
혀 ㅍㅈ ㅈ 안자 보고 더 ㅍㅈ ㅈ 거리 보니, 번로(??)한
ㅁ, ㅀ ㅁ의 ㅂ, ㄹ 일이 아조 엷다. 실 사이 엷거든 길히나
ㄷㅎ, ㄹ야. 다만 한 청려장(?ㅂ?)ㅈ 다 므되여 가노ㅁ ㅈ라. 술이
닉어거니 벗지라 엷슬소냐. ㅍㄴ ㅈ며 ㅈ, 이며 혀이며 이아며,
온가짓 소르 ㅈ로 취흥(??) ㅈ 한가ㅎ, 다. 희황(??)을 ㅍ르, ㄹ리니
이적이야 기르고야. 신선(??)이 엷터턴지 이 몸이야 기르고야.
강산풍월(:???) ㅈㅈ, ㄹ리고 내 백년(?ㄹ)을 다 누리면 악양루상
(???)의 이태백(???)이 사라 오다. 호탕정회(???)야 이에서
ㅈㅎ, ㄹ소냐. 이몸이 이렇 굶도 역군은(?ㄴ?)이샷다.
-송순, 면양정가(ㅁ???)-



[30~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대곤삼십도(まび???)를 매우 치고, 죄목을 엄히 문초하되,
 "네 이 놈! 차후에도 옹가라 하겠느냐?"
 실용가는 곰곰이 생각건대, 만일 다시 옹가라 우길진대 필시 곤장 밑에 죽겠기에,
 "예, 옹가가 아니오니, 처분대로 하옵소서."
 아전이 호령하기를,
 "장채 안동(?)*하여 저 놈을 월경(?Q)시키라."
 하니, 군노사령 벌떼같이 일시에 달려들어 옹가놈의 상투를 움켜잡고 휘휘 돌려 내쫓으니, ㉠실용가는 할 수 없이 걸인 신세가 되고 말았다.
 고향 산천 멀리하고 남북으로 빌어먹을 새, 가슴을 탕탕 치며 대성통곡하며 하는 말이,
 "답답하다 내 신세야! 이 일이 꿈이나 생시냐? 어찌하면 좋을는지 이른바 낙미지액(㉡???)*이로다."
 무지하던 실용가는 어느덧 허물을 뉘우치고 애통하여 하는 소리가,
 "나는 죽어 썩 놈이로되, 당상학발(ぼ???)*우리 모친 다시 봉양하고 싶고, 어여쁜 우리 아내 월하(?)의 인연 맺어 일월로 다잡하고 천지로 맹세하여 백년중사(㉢???) 하렸더니, 독수공방 적막한데, 임도 없이 홀로 누워 전전반측(????) 잠 못들어 수심으로 지내는가? 슬하에 어린 새끼 금옥같이 사랑하여 어를 적에 '섬마 등등 내 사랑아! 후두둑 후두둑, 엄마 아빠 눈에 암암' 나 죽겠네, 나 죽겠어! 이 일이 생시는 아니로다. 아마도 꿈이니, 꿈이거든 어서 바빠 깨어나라!"
 이럴 즈음 허용가의 거동 보세. 송사에 이기고서 돌아올 때 의기양양하는 거동, 진소위(???) 제법이것다. 얼씨구나 좋을시고! 손춤을 휘저으며 노래가락 좋을시고! 이러저리 다니면서 조롱하여 하는 말이,
 "히히 흉악한 놈 다 보겠다! 하마터면 고운 우리 마누라를 빼앗길 뻔하였구나."
 하고 집으로 들어서며 희색(???)이 만면하니, 온 집안 식솔들이 송사에 이겼다는 말을 듣고 반가이 영접할새, 실용가의 마누라가 왈각 뛰쳐 내달으며 허용가의 손을 잡고 다시금 묻는 말이,
 "그래 참말 송사에 이겼소이까?"
 "히히 그리하였다네. 그 사이 편안히 있었는가? 세간은 고사하고 자칫하면 자네마저 놓칠 뻔하였다네! 원님이 명찰하여 주시기로 자네 얼굴다시 보니 이런 경사또 있는가? 불행중다행이로세!"
 그럭저럭 날 저물매, 허용가는 실용가의 아내와 더불어 긴긴 밤을 수작타가 원앙금침 펼쳐놓고 한자리에 누웠으니, 양인 심사 깊은 정을 새삼 일러 무엇하랴!
 이같이 즐기다가 잠시 잠이 들어 실용가의 아내가 한 꿈을 얻으며 하늘에서 허수아비가 무수히 떨어져 보이기에 문득 깨달으니 남가일몽(㉤???)이라. 허용가한테 몽사를 말하니, 허용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일이 분명하면 아마도 태기가 있을 듯하나, 꿈과 같을진대 허수아비를 낳을 듯하네마는, 장차 내 두고 보리라."
 이러구러 십 삭이 차매 실용가의 아내 몸이 고단하여 자리에 누워 몸을

L. (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시적 화자의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언어 영역

9

풀 새 진양성증가가조(???? || || ?)*에 개구리 해산하듯, 돼지가 새끼 낳듯
무수히 퍼 낳는데 하나 둘 셋 넷 부지기수였다. 이렇듯이 해산하니 보던
바 처음이며 듣던 바 처음이다.

실용가의 마누라는 자식 많아 좋아라고 괴로움도 다 있으며 주렁주렁
길러 내었다.

이렇듯이 즐거이 지낼 무렵, 실용가는 할 수 없이 세간 처자 모조리
빼앗기고 팔자에 없는 곤장 맞고 쫓겨나니 세상에 살아본들 무엇하리?

이렇게 슬피 울 새 한 곳을 쳐다보니 층암절벽 벼랑 위에 백발도사 높이
앉아 청려장을 옆에 끼고 반송 가지를 휘어잡고 노래 불러 하는 말이,

"뉘우쳐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하늘이 주신 별이거늘,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고자 하는가?"

실용가는 이 말을 다 들으며 어찌할 줄 모르는 듯, 도사 앞에 급히
나아가 함장배례 급히 하며 애원하되,

"이 몸의 죄 돌이켜 생각하면 천만 번 죽사와도 아깝지 아니하오나,
밝으신 도덕 하에 제발 덕분 살려 주사이다. 당상의 늙은 모친, 규중의
어린 처자, 다시 보게 하옵소서. 이 소원 풀고 나면 지하로 돌아가도
여한이 없을 줄로 아나이다. 제발 덕분 살려 주옵소서."

온갖 정성 다 기울여 애걸하니, 도사가 소리 높여 꾸짖기를,

"천지간에 몹쓸 놈아! 이제도 팔십 당년 병든 모친 구박하여
냉돌방에 두려는가? 불도를 업신여겨 못된 짓 하려는가? 너 같은 몹쓸
놈은 응당 죽여 마땅하되, 정상이 가궁하고 너의 처자 불쌍하기로 풀어
주겠으니 돌아가 개과천선하여라."

도사는 ㉠부적 한 장을 써 주면서 일러두길,

"이 부적 간직하고 네 집에 돌아가면 괴이한 일이 있으리라."

하고 슬며시 사라지니, 도사는 간데 온데 없었다.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와서 제 집 문전 다다르니, 고루거각(· ?
♫") 높은 집에 청풍명월 맑은 경개는 이미 눈에 익은 풍취였다. 담장
안의 흥련화는 주인을 반기는 듯, 영산홍아 잘 있었느냐? 자산홍아
무사하냐? 옛일을 생각하매 오늘이 옳으며 어제는 잘못임을 깨닫고
옛집을 다시 찾아오니 죽을 마음 전혀 없다.

"가소롭다, 허옹가야! 이제도 네가 옹기라고 장담을 할 것이냐?"

늙은 하인 내달으며,

"애고 애고 좌수님, 저 늙이 또 왔소이다. 천살 맞았는지 또 와서
지랄하니 이 일을 어찌하오리까?"

이럴 즈음에, 방에 있던 옹기는 간데 없고, 난데없는 짙 한 묶음이 놓여
있을 따름이요, 허옹가와 수다한 자식들도 홀연히 허수아비 되므로, 온
집안이 그제서야 깨달은 듯 박장대소하였다.

- *안동(?ㄷ) : 직접 데리고 감.
- *낙미지액(@???) : 눈 앞에 닥친 재앙
- *당상학발(ㅁ???) : 머리가 흰 늙은 부모님



[35~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얼었던 흙이 제 살을 풀면서, 흙의 향기가 풍겨나기 시작한다. 후미진 산자락이 아니라도, 흙내음이 풍겨날 듯하니, 흙의 시대에 자란 세대다울일까? 그렇다. 나는 지금 같은 플라스틱이나 강한 쇠붙이 문화의 시대에 자라지 않았다. 저 원시 시대 같은 흙먼지와 부드러운 나무의 문화에서 잔뼈가 굵었다고나 할까? 그래서 흙과 나무의 문화에 더 가깝다.

그러나 사람들은 부드러워서 연약하고 불에 타 버려서 깨끗이 연소가 되는 나무나 흙보다는, 더 강하고 단단한 강철과 쇠붙이의 시대로 옮겨왔다. 이것을 발전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나무나 흙의 본성을 점차 ㉠잊어 가는 것일까? 흙에서 태어나 죽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갈 사람이 흙의 본성을 ㉡잊어 가면서, 도리어 강철과 쇠붙이의 성질을 닮아 가니, 어찌 소란스럽고 잔혹한 사건이 빈발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이 시대를 이해하려고 애쓰지만 하도 끔찍스런 사건이 자주 일어나니 무서워서 어찌 살수가 있겠는가 말이다. 강철 시대라서 사람들의 마음도 강철같이 쇠붙이같이 차갑고 냉혹스러워 이리할까?

사람도 환경의 소산일진대, 우리의 환경에서 그 원인이 찾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컨대, 우리는 옛 농경 시대와는 달리 쇠붙이를 사용하는 기계 시대에 살고 있다. 그 어느 하루도 쇠붙이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살수가 없다. 자동차, 기차, 지하철, 비행기 아니 시내 버스를 타더라도 마찬가지로 아닌가. 어디 그뿐인가. 살고 있는 집의 골격과 건너 다니는 다리도 그러하고 손으로 만지고 항상 몸에 지니는 핸드백에도 쇠고리가 붙어 있고, 사용하는 의자나 책걸상에도 쇠붙이 강철이 없으면 아무 기능을 하지 못하니, 결국 우리의 마음이 강철처럼 무감각하고 쇠붙이처럼 냉혹해지는가? 이런 강철과 쇠붙이로 된 기계에서 인정이나 눈물이 나올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을.

농경 시대에는 생활에 사용하는 연장과 가구 등 생활 용품 모두가 나무와 흙으로 만들어졌었다. 물론 쇠붙이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어쩔 수 없는 작은 부분에만 강철을 사용했을 뿐, 대부분이 나무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요즘의 모든 물건을 보자. 손잡이에서부터 결정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플라스틱이나 쇠붙이로 되었다. 차갑고 섬뜩한 감촉의 강철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피부에 맞닿아야 되니, 아무리 눈물이 많고 인정이 뜨거운 사람도 어찌서 영향을 받지 않으랴.

나무는 사람처럼 살아 있는 생물이다. 심지어는 나무로 집을 짓거나 가구를 만들 때에도, 제 고장에서 자란 나무를 사용하고, 또 죽은 나무라도 숨을 쉴 수 있도록 페인트나 니스를 칠하지 않으면 수백 년이나 견딜 수 있다고 한다. 우리 선조들은 이러한 살아 있는 생물로서 목재를 사용하여 집을 지었고 물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고궁과 옛 가구가 오랜 세월에도 견디어 남아 있게 된 것이라 하지 않는가.

- 유안진, 쇠붙이와 강철 시대의 봄을 맞으면서 -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상 매체는 문자가 아닌 이미지의 언어로 이루어져 있다. 오늘날 영상 이미지의 사용은 점점 더 일반화되고 있으며, 우리는 일상적으로 이미지를 사용하고 해독한다. 특히 매체의 영상은 언제 어디서나 흘러 넘치는 이미지로서 일상적 삶의 한 부분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이미지를 만드는 사람들은, 우리의 순진함을 이용하여 우리를 조종하고 은밀히 자신의 의도를 주입시킬 수도 있다.

광고에서 펼쳐지는 이미지는 결코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떠한가를 말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상품을 구입할 경우, 달라지게 될 세련되고

언어 영역

11

매력적인 미래의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처음에는 이러한 이미지를 자신의 미래 이미지로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반복해서 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광고 이미지 전체를 자신의 미래 이미지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렇게 ㉠광고는 초라한 일상의 나에서 벗어나 환상적인 미래의 나로 변신하고 싶다는 욕망을 자극한다.

광고 속의 이미지가 현실을 왜곡하고, 보는 이의 욕망을 자극하듯이 드라마나 영화도 마찬가지다. 드라마나 영화에 제시되는 삶의 모습 또한 ㉡현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기보다는 보는 이의 시선을 끌 만한 상황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설정된 인물들의 성격이나 직업 등은 극적인 재미를 극대화하기 위해 현실 생활과는 다르게 왜곡되기 일쑤여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편견을 갖게 한다.

문제는 이런 이미지에 길들여지면 이미지의 세계를 현실 세계로 여기게 된다는 점이다. 드라마에서 어떤 배우가 한 머리 모양이 인기를 끌고 광고 카피가 속담이나 격언보다 위력을 떨치며, 영화를 통한 모방 범죄 심리가 생기는 것도 이와 같은 이미지의 영향력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미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주체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이미지에 의해 연출된 삶을 감각적으로 소유하고, 현실과 다른 환상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게 된다.

그렇다고 해서 이미지가 사람들로 하여금 환상적인 세계 속에 젖어들게 하여 현실을 망각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위험성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미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바르게 받아들인다면, 자유로운 상상력을 키워주는 긍정적인 기능도 있다.

이미지란 어떤 사건이나 대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 과정에는 상상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비현실적인 것을 형상화한 이미지는 고도의 상상력을 거쳐 탄생하기 마련이며 이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사고의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살아 있는 이미지는 기존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을 바꿀 수도 있다.

이미지가 팽배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범람하는 이미지의 흐름에 자신을 맡긴 채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이미지를 주체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는 이미지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어 내야 한다.

지금 바로 내추럴 슬림 다이어트
10kg 감량성공, 여름미인으로!

기대하세요 천연 슬임 발효 식품

여름미인 슬임미인

본-대 헬스 000-0000-0000

『제스틸과 인공에센틴 다이어트 요리에 특별한 맛과 영양을 더했습니다.』

● 100% 천연 재료 사용 ● 100% 무설탕 ● 100% 무지방 ● 100% 무염료

실 유무에 대한 명확한 입증 없이 광고를 위해 연출된 장면을 소비자가 그대로 믿도록 강요하고 있어.

모음을 생성하는 방식도 매우 과학적임을 알 수 있다. 자음과 마찬가지로 ㉠모음의 기본자(ㄷ, ㄴ, ㄹ)를 만든 후, 이 기본자의 어울림으로 초출자(ㄱ, ㅋ, ㆁ, ㆁ)를 만들고, 이 ㉠단모음 7자를 다양하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글자 모양과 소리(이중□삼중모음)를 생성한 것이다. 여기에다 빼놓을 수 없는 한글의 장점은, 모음의 소리값이 항상 일정하다는 점이다. ㉡우리의 모음은 축약(?)의 경우가 아니라면 언제 어느 때라도 일정한 소리를 유지하게 되어 있다. 영어 'A, E, I, O, U'가 각종 단어에서 얼마나 다양한 소리를 내는지를 고려해 보면 우리 한글이 얼마나 익히기 쉬운 우수한 문자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한글의 참된 가치는 날이 갈수록 더욱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뛰어난 것이라도, 우리가 깊이 연구하여 그 가치를 드러내고 나아가 그것을 세계에 널리 알려야 참된 가치를 올바르게 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한글은 우리 민족 문화를 뛰어넘어 인류 문화에 빛나는 금자탑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글은 세종이 주도하여 창제한 세계적인 문자로서 세계 문자 역사상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1940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됨으로써 한글이 만들어진 원리가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 훈민정음의 원리에 대한 연구로 학위를 받은 미국 컬럼비아 대학 동아시아학 교수 게리 레드야드는 자신의 학위 논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글자 모양과 기능을 관련시킨다는 착상과 그 착상을 실현한 방식에 정녕 경탄을 금할 수 없다. 유구하고 다양한 문자의 역사에서 그런 일은 있어 본 적이 없다. 소리 종류에 따라 글자 모양을 체계화한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다. 그런데 그 글자 모양 자체가 그 소리와 관련된 조음(?) 기관을 본뜬 것이라니! 이것은 견줄 데 없는 언어학적 호사(?)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소리의 종류에 따라 글자 모양을 체계화'했다는 레드야드의 말은 무슨 뜻인가? 이는 조음 기관을 본뜬 ㉡기본 글자 다섯(ㄱ, ㄴ, ㄹ, ㅁ, ㅂ)에다 한 획씩 더하는 방식으로 글자를 생성하여 그 글자들이 계열화를 이루게 하였다는 뜻이다. 예컨대 연구개음(여린입천장소리)인 'ㄱ'에 획을 더해 같은 연구개음이 되 거센소리 글자인 'ㅋ'을 만들고, 입술소리인 'ㄹ'에 획을 차례로 더해 같은 입술소리이 되 새로운 자질(?)이 더해진 'ㄴ'과 'ㄷ'을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이 점은 로마 문자와 비교해 보면 한글에 함축된 음운학 지식이 얼마나 깊고 정교한지 금방 드러난다. 예컨대 이나 잇몸에 혀를 댄다 때면서 내는 소리들을 로마 문자로는 'N, D, T'로 표시하지만, 이 글자들 사이에는 형태적 유사성이 전혀 없다. 그러나 한글은 이와 비슷한 소리를 내는 글자를 'ㄴ, ㄷ, ㅌ'처럼 형태적으로 비슷하게 계열화함으로써, 이 소리들이 비록 자질은 다르지만 소리나는 곳은 같다는 것을 한눈에 보여 준다. 이 말은 이미 훈민정음 창제자들은 음소(?) 단위의 분석에서 더 나아가, 현대 언어학자들과 같이 음소를 다시 자질로 나눌 줄 알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1 점]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영원히 늙지 않고 살 수 있는 불로초(???)를 찾다가 50 세에 죽었다는 진시황처럼 오래 살고 싶다는 소망은 누구에게나 공통된 인간의 욕망이다. 현대 과학의 발달에 따라 인간이 왜 늙게 되는가에 대해 전보다 많은 것들을 알게 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노화(???)의 비밀은 완전히 풀리지 않은 채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노화를 설명하는 이론들은 많지만, 크게 '활성산소의 축적'과 '노화에 영향을 미치는 특정 유전자의 존재'에 관한 이론으로 대별된다.

전자(?)는 사람의 신체는 일생 동안 많은 유해한 자극들로 인하여 각 장기 및 기능이 약화되어 노화가 진행된다는 이론이다. 특히 활성산소가 노화의 가장 주된 요인으로 꼽히는데, 활성산소란 사람이 음식을 섭취하고 소화한 후 영양분을 산화(???)시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산화력이 매우 큰 산소 이온을 뜻한다. 이 활성산소는 특정 단백질과 결합해 체내 세포나 DNA 에 손상을 입히고 변이를 일으키면서 노화를 촉진한다고 한다.

사람이 들이마시는 산소 가운데 1~4 퍼센트 정도가 인체에 해로운 활성산소로 남게 되는데, 한번 손상된 세포 조직 등을 완벽히 복구할 수는 없기 때문에 노화의 정복은 어려운 것으로 본다.

다만, 활성산소를 줄이는 체내의 효소에 관계된 비타민 등을 잘 공급하고, 체내의 산소 소모량을 줄이면 활성산소도 그만큼 줄어들게 되므로, 노화의 진행을 어느 정도는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동물 실험 결과 음식물의 섭취를 줄이거나 냉혈동물인 경우 낮은 온도에서 기르면 수명이 훨씬 길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다. 사람의 경우에도 세계적으로 장수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공통점의 하나가 바로 식사를 적게 하는 습관이라는 사실 또한 산소가 노화의 주범으로서, 산소 소비량을 줄이면 장수할 수 있다는 이론을 뒷받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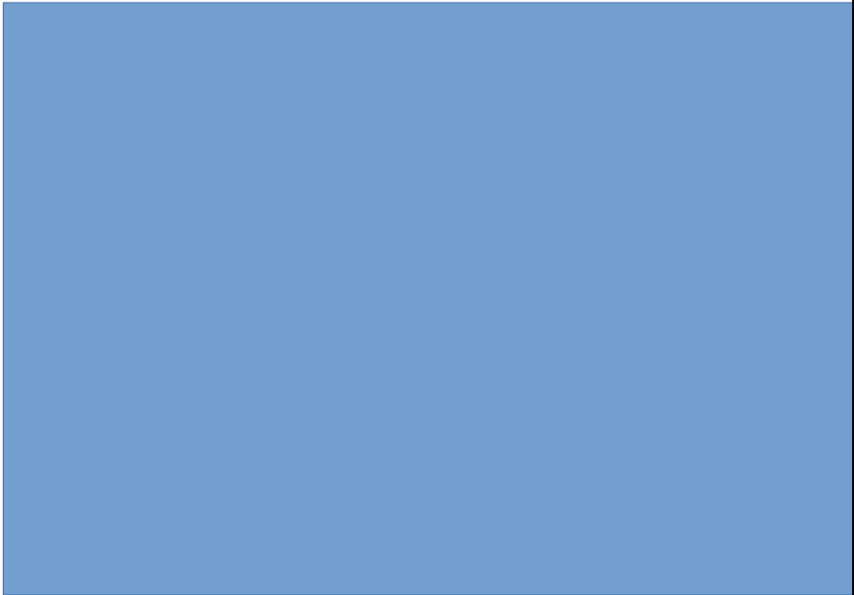
노화와 관련된 또 하나의 이론은 특정 유전자가 존재하여 마치 시계가 작동하듯이 노화가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다. 특히 최근에는 세포 노화의 척도가 되는 염색체의 끝 부분에 달려 있는 텔로미어(telomere)에 노화 연구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텔로미어란, 세포의 유전자 정보가 담긴 염색체의 양 끝 부분에 달려 있는 단백질의 사슬로서 염색체를 보호하는 구실을 하며,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이것의 길이가 짧아지게 된다. 수많은 세포 분열의 결과 텔로미어가 다 닳아서 일정 길이 이하가 되면 세포 분열이 멈추기 때문에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끊임없이 세포 분열을 하는 암세포에서는 텔로메라제(telomerase)

라는 효소가 발견되는데 이것이 텔로미어 길이의 단축을 막는다는 최근의 연구 결과가 있었다. 또한, 동물 실험 결과도 텔로메라제를 만드는 유전자를 없앤 경우 수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텔로미어가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생명을 연장하는 방법을 인간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는 아직 의문이다. 현재까지 수명에 관련된 몇 가지 유전자가 발견되기는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유전자들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도 아직 논란이 적지 않다. 또한 특정 유전자가 노화를 조절한다고 해도 생명 현상은 수많은 유전자들이 작용하는 복잡한 구조인데다가, 노화와 관련된 매커니즘을 완벽히 밝혀내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불로장생은 인류의 오랜 꿈이기도 하지만, 정말 실현되었을 경우 과연 행복할 것인가라는 의문도 있다. 최신 공상 과학물이나 옛 고전문학 작품에서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는 불로불사(???)는 도리어 비극으로 그리고 있다. 인명(?)은 재천(?)이라는 우리 옛말도 이를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1. [A]의 과정과 가장 유사한 사례로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의 민속악이나 민속춤에서는 '장단을 먹어 주는' 대목이 많이 나온다. 바로 이러한 대목이야말로 불필요한 것이나 잡다한 에피소드를 없애는 순간이다. 그것은 곧 동양 회화에서의 여백에 해당되고, 한국 음악에서 음과 음 사이의 빈 시간·공간을 채워 주는 농현((k))에 해당된다. 고요한 파문을 일으키는 '장단을 먹어 주는' 대목은 맺힌 것을 풀어 주는 이완일 경우도 있고 풀린 것을 맺어 주는 긴장일 경우도 있다. 모든 예술이 다 그렇긴 하지만, 긴장과 이완을 적절히 배합하여 맺고 풀고 어르고 당기는 데에 한국 춤의 묘미가 있다. 장단을 먹어 가며 보일 듯 말 듯, 어깨 짓이나 고개 놀림으로 우쭐거리는 '허튼 춤' 같은 데에서 더욱 그러한 맛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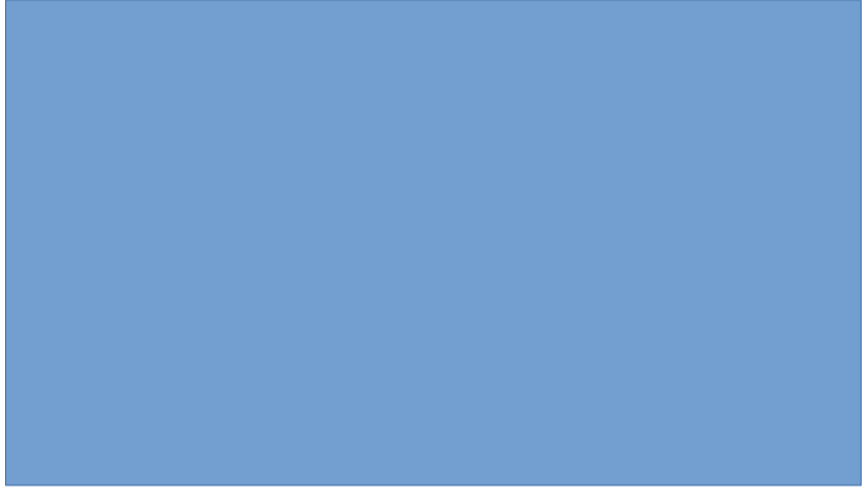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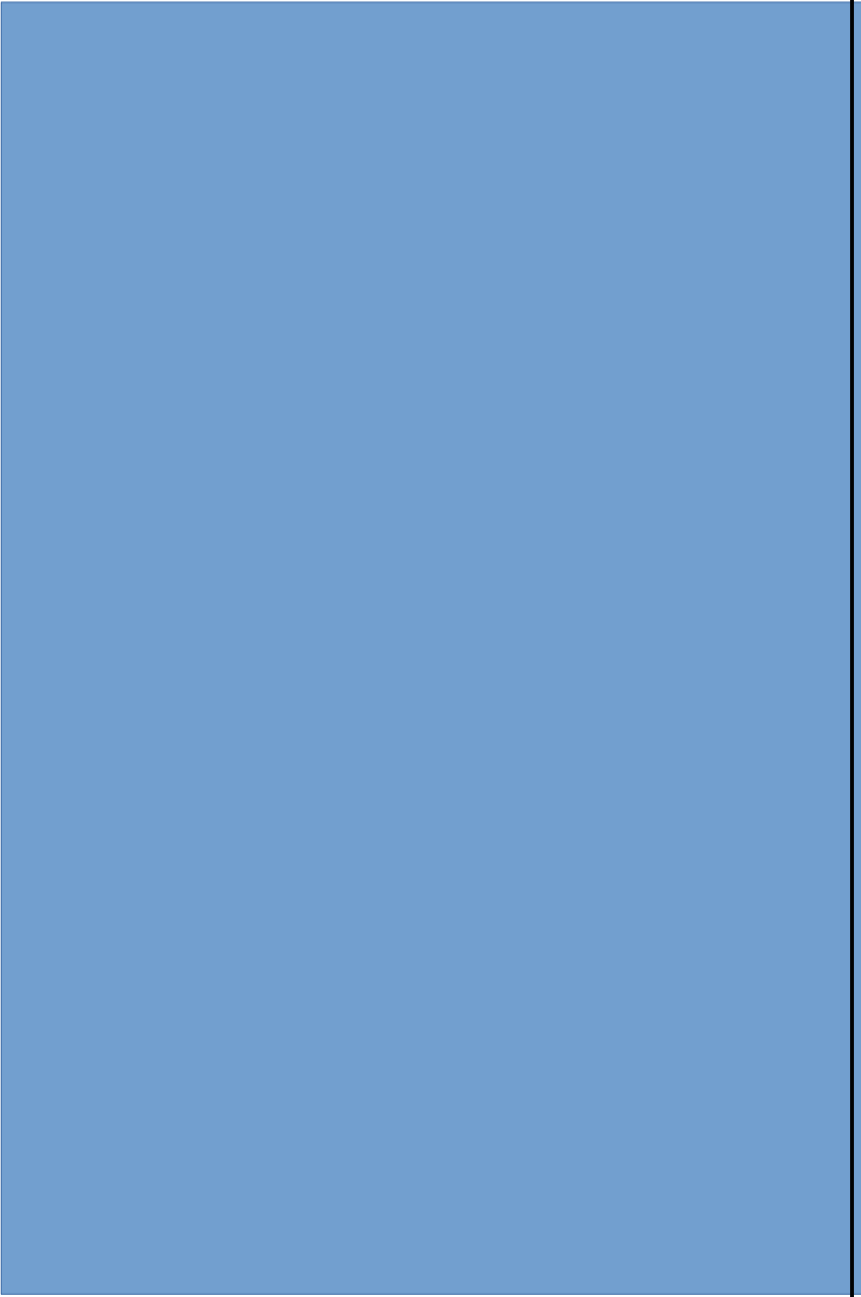
이렇게 맺고 푸는 연결점의 고리 역할을 더 철저히 하면서도 더 자유분방한 경우가 있는데, '엇박을 타는' 대목이 그러하다. ㉠'엇박을 타는' 대목은 평범한 순차적인 진행 구조에 한 가닥의 파란을 일으킨다. 이렇게 해서 일상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새로운 활기를 부여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순리적이고 동시에 우호적이어서 저항감보다는 오히려 친근감을 더해 준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파격으로 생성되는 흥은 한국적 해학이 되어 한국 예술 전반에 걸쳐 두루 나타난다. 제 흥을 못 이겨 약간 구부정한 몸놀림을 한다든지, 갓을 쓰되 비껴 쓰고, 말을 타되 몸을 곧추세우지 않고 비스듬히 비껴 앉는다든지 하는 한국인의 멋 부림은 일상적인 파격에 연유되어 있다.

이러한 일상적인 파격은 한국적 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한국의 지붕의 선은 직선도 아니고 곡선도 아닌, 그리고 무디지도 날카롭지도 않은, 기묘하게 휘어진 선이라고 한다. 조선 백자의 선 또한 그러하다. 기와 지붕의 처마 선처럼 하늘의 빛을 어깨 죽지에 받아 날렵하게 밑으로 흘러내리듯 이를 그 끄트머리에서 다시 모아 고이게 했다가는 조금씩 조금씩 아래로 떨어뜨리는 한국적 선은 버선발의 선이나 소맷자락의 선을 최대한으로 살려내는 한국 춤의 선과 다르지 않다. 이는 멧과 흥을 어깨에 받아 태극선을 그리면서 이를 원심적으로 사지에 펼치며 오금과 돌음새*로 발을 내디디는 한국 춤의 매무새와 일치한다.

한국인의 미적 심성에서는 판에 박은 듯한 글씨나 그림을 높이 평가하지 않고, 도자기를 굽더라도 서로 모양이 다른 것이 나올 때라야 묘미를 느낀다. 똑같은 것을 두 번 다시 되풀이하는 것을 재미없어 하는 것이다. 그만큼 공연 예술의 한 특성인 일회성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국 춤을 흔히 멧과 흥의 춤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일상적 파격의 요소들이 어우러져 음악과 춤이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때로는 음악과 춤이 전혀 다르게 제각기 제멋대로 공연되기도 하고, 때로는 휘모리로 마구 몰아대는 음악 반주에도 아랑곳없이 아주 느리고 태평스런 춤을 추기도 한다. 이러한 음악과 춤의 극단적인 대비로 오히려 역동이 드러나고, 더 나아가 춤과 음악이 자유로운 불일치를 이루는 데에서 오히려 극치의 조화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결국 한국인은 일상성의 파격을 바탕으로 이미 삶을 예술화하면서 살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한국 춤은 춤추는 이는 말할 것도 없고, 보는 이까지도 ㉡어떤 정신적 깊이에 도달해 있지 않고서는 제대로 볼 수 없고, 제대로 향유할 수도 없는 것이다.

[51~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한국 전통 춤이 가진 특성의 하나를 단적으로 일러 주는 것으로서 "손 하나만 들어도 춤이 된다."라는 말이 있다. 이는 겉으로는 동작이 거의 없는 듯하면서도 그 속에 잠겨 흐르는 미묘한 움직임이 있어 수많은 움직임을 하나의 움직임으로 집중하여 완결시킨 경지이다. 이를 흔히 정중동(???)이라고 한다.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역사가는 민을 만한 지도를 손에 들고 과거라는 큰 도시를 찾아드는 여행가와 같다. 그렇다면 역사가의 지도란 무엇인가? 그것은 많은 사실 속에서 역사적 의미를 가려 낼 수 있게 하는 문제 의식이다. 또한 그것은 어느 시대를 역사적 전후 관계에 따라서 전체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관점이다. 역사가의 사명은 바로 이러한 문제 의식과 관점을 확실하게 세워서 사회와 인간 생활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있다. 결국 역사가의 문제 의식은 궁극적으로 역사가의 사관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역사가의 사관(❖)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역사가의 사관 형성은 무엇보다도 정직한 마음을 가지는 데서 가능하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솔직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누구나 자기가 아는 것이 남보다 많다 하거나, 자기 민족의 역사는 영광의 역사라 주장하고, 설사 그러한 역사가 영광 아닌 고난의 역사라 해도 그런 대로 소위 '주체성'이 우수했음을 강조하고 싶은 것이다. 하지만 미화(??)는 과거를 바꾸어 놓을 수 없고 또 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랑케는 이러한 역사가의 정직을 강조하면서 '일어났던 그대로' 사실을 재구성하라고 말한 바 있다.

다음으로 역사가의 사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덕성은 금욕주의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이 금욕 원리에서 정신의 평화를 찾았듯이 역사가는 현실적 욕망의 테두리를 벗어남으로써 대상을 관조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한다. 이러한 역사가의 관조의 위치는 잡다한 인간 사회의 모든 현상을 잘 관찰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역사학의 이런 '물실리성'은 역사학을 진정한 기초 학문, 즉 인간 교양의 학문으로 승격시킨다. 역사가는 알렉산더 대왕 앞에서 태양별을 즐기던 통나무 속의 디오게네스와 같다. 그는 권력자의 눈치를 살피지도 않으며 출세를 걱정하느라 ㉠눈이 어두워지지도 않을 것이기에 역사학이 진정한 아카데미즘으로 승화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역사학이 현실적 욕망의 테두리를 벗어나 관조하는 '물실리성'을 지닌다고 해서 이것이 '현실 불감증'과 동일시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역사학은 가장 현실에 민감하고 미래에의 전망과 결부되고 있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해서 역사학의 출발점은 현재에 있으며, 과거는 단순한 '죽은 과거'로 취급되는 데 있지 않다. 역사에서의 객관성이란 과거 사실 그 자체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의 연관성 속에서 과거를 인식하는 것이다. ㉡일찍이 드로이젠이 랑케의 객관성을 가리켜 '환관(❖)의 객관성'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흐잡을 데 없는 완성품부족한 점기성의 사관을 보완□수정다른 사관독자적인 사관이 항구적 가치를 갖는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것도 오랜 시일에 걸쳐 평가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언어 영역

17

